

## <角觥少年傳> 해제 및 역주

신 해 진\*

차 례

- I. 해제
- II. 역문

- III. 원문과 주석

### I. 해제

<角觥少年傳>은 卞鍾運(1790-1866)이 지은 것으로, 그의 시문집인 《歎齋集》<sup>1)</sup> 文鈔 권2에 실려 있다.

변중운은 본관이 밀양이며 자는 朋七, 호는 歎齋이다. 아버지 卞得圭는 譯科를 거쳐 兪正을 역임했고, 어머니는 밀양 변씨와 함께 대표적 역관 가문이었던 牛峰 金氏家 恒端의 여식이다. 변중운은 純祖 10년(1810) 增廣試 역과에 급제하고, 당대 文臣인 李裕元, 尹定鉉, 南公轍 등과 신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교분을 맺어 그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면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소재집>은 그 발문을 보면 손자 卞春植이 1890년에 간행한 것인데, 임형택에 의해 『이조후기 여항문학총서』5(여강출판사, 1986)에, 그리고 민족문화추진회에 의해 『한국문집총간』303(민족문화추진회, 2003)에 영인되어 있다. 한국문집총간 본은 표점까지 되어 있다.

역관으로서 반드시 수행하였던 인물이다.<sup>2)</sup> 그는 특히 시에 능했고 칠언 절구로 지은 <楊子津>은 널리 애송되었으며, 그의 《歎齋集》은 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에서 영인되어 전할 만큼 중국에서도 그 명성이 높았던 역관시인이다.

<각저소년전>은 현재까지 이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 작자의 서술의식과 서사방식에서 傳보다는 소설적 성향이 강한 작품이라는 논의<sup>3)</sup>와, 입전취지와 서사구조 측면에서 오히려 傳문학의 특징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논의<sup>4)</sup>가 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郭雲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힘을 자부하여 쏘다니기를 좋아했고, 길에서 못마땅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해 자신의 몸을 생각지 않던 인물이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몹시 사나워 보이며 건장한 중 하나가 주막 문밖에 방자히 걸터앉아 주막주인에게 빗 독촉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중은 줄이 끊겨 날뛰는 소를 맨주먹으로 때려죽이고, 소 일곱 마리로도 움직일 수 없었던 큰 돌을 거뜬히 옮긴 인물이지만, 마을사람들에게 고리대로 등쳐먹는 악인이었다. 그리고 씨름을 몹시 좋아했지만, 세상에 그의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중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마침 한 젊은이가 자기 처를 소에 태우고 주막으로 왔다. 그 젊은이는 몹시 섬약한 모습이었고, 그의 처는 뛰어난 미인이었다. 이에, 중은 젊은이에게 자기가 가진 삼백 금을 다 줄 터이니 처를 자기한테 달라고 했다. 중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넘겨주고 나서 곧장 젊은이의 처가 들어간 방으로 들어가려 하

2) 이수진, 『소재 변중운의 시세계』, 『한국어문학연구』 4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109-110쪽.

3) 박희병, 『조선 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341-357쪽.

4) 유권석, 『소재 변중운의 <각저소년전>에 관한 문예적 고찰』, 『한국 전문학 연구』, 보고서, 2006, 308-333쪽.

자, 젊은이는 잠시 자기 처와 이별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매일밤 우리 부부가 방에서 씨름놀이를 했거늘 이제 다시는 할 수 없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한다. 이 말을 듣게 된 중이 젊은이에게 씨름을 한번 하자고 하니, 젊은이는 ‘씨름에 내기가 없으면 재미없다’며 내기를 걸자고 했다. 그리하여 중이 이기면 한 푼도 갚지 않고 젊은이의 처를 데려가고, 젊은이가 이기면 돈과 밭은 바라지 않고 그의 처만 데리고 떠나는 것으로 내기를 걸었다.

곽운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막 앞에 있는 작은 언덕의 언덕배기에서 젊은이와 중은 씨름을 하였다. 언덕배기 아래에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푹구덩이가 있었다. 젊은이가 신기에 가까운 씨름기술로 중을 그 푹구덩이로 던져버리니, 중은 푹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

중이 죽자, 중이 좋아하는 씨름을 이용하여 중의 목숨을 앗은 것을 두고 마을사람들이 ‘중이 씨름을 좋아한다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고 묻지만, 젊은이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젊은이는 마을사람들의 빛 문서를 모두 불사른 다음, 자신의 처를 소에 태우고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한 곽운은 악승에게 기가 꺾였고 젊은이에게 간담이 서늘했는지라, 집으로 돌아온 이후 다시는 남과 겨루려 하지 않고 암전한 사람이 되었다.

곽운의 이러한 행동거지를 이상히 여긴 이자명의 선친에게 각저소년과 중에 관한 사건이 알려졌고, 그 대강의 이야기를 또 이자명과 황경일이 변중운에게 들려준 것으로 결구되어 있다.

즐거리 요약을 통해, <각저소년전>은 자신의 힘을 믿고 으스대던 곽운이 평소와 달리 아주 조심하고 암전해진 것에 대한 의심스런 시선과 추궁이 있자, 곽운이 자신이 겪은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작품화의 출발임을 알 수 있다. 또 그 대강의 이야기가 이자명과 황경일에게 전해졌고,

다시 그 이야기가 변중운에게 제보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변중운에게 제보되기 전까지의 단계는 평소와 달라진 꺾은의 행동변화의 계기가 무엇이었던가에 초점이 모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계기는 바로 중이 날뛰는 소를 맨손으로 때려죽인 사건과 각저소년과 중 사이에 벌어졌던 내기씨름이었던 셈이다. 이에, 섬약한 젊은이가 건장한 중을 씨름으로 이겼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이야기는 상대방을 이기지 못할 것 같던 사람이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체구가 아주 건장한 사람을 이겼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진, 간단한 줄거리 중심의 이야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줄거리 중심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변중운은 중을 고리대로 마을사람들을 등쳐먹는 악승으로 형상화하였고, 게다가 체구 건장한 그 악승을 씨름이라는 하나의 일화를 통해 섬약한 젊은이가 징치하는 모습으로 실감나게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목은 <각저소년전>의 창작환경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씨름하는 장면인데, 조그만 몸놀림까지도 찬탄할 정도로 치밀하게 재현하고 있다.

① 젊은이는 오른 무릎을 굽히고 왼 무릎을 펴서 세우며 등을 활 모양으로 구부리고 배에 힘을 주면서, 오른손으로 중의 왼쪽 넓적다리를 움켜잡고 다시 왼손으로 중의 등을 휘감으며 그 허리띠를 꼭 잡았다. 그러자 중은 키[箕]처럼 두 다리 벌려선 채로 계속 곁곁대며 웃더니 그치지 않았다. ② 젊은이가 갑자기 기합소리를 넣더니 별안간 중을 곧추들어 올려 자신의 왼쪽 어깨 위에다 걸쳤다. 중은 두 손으로 허공을 허우적대고 두 다리로 허공을 바둥거리니, 마치 헤엄치는 이가 파도 속을 이리저리 헤엄치는 것과 같았다. 젊은이가 빙빙 돌리니, 완연히 큰 봉새가 날개로 큰 바람을 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는데도, 중은 여전히 젊은이의 어깨 위에 걸쳐 있었다. 또 물레가 베를 따라 도는 듯하여, 힘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었다. 젊은이가 한 어깨는 높이고 한 어깨는 낮추며, 왼손은 쟁반에 물을 담는 듯하고 오른손은 칼집에서 칼을 뽑

는 듯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허리를 굽혀 마침내 못된 중을 똥구덩이에 다 던져버렸다.<sup>5)</sup>

단오가 되면 남자들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로 힘과 슬기를 겨루던 씨름이 있었다. 물론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해지기도 했던 놀이였다. 전래하는 씨름은 ‘왼씨름’과 ‘오른씨름’ 두 가지로 구분된다. 왼씨름은 주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지방에 분포되어 왔고, 오른씨름은 경기도, 전라도 지방에 분포되어 왔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씨름 경기가 왼씨름으로 행해진다. 왼씨름의 기본자세는, 자신의 오른쪽 넓적다리에 살바를 두르며, 오른손으로는 상대방의 허리살바를 잡으며, 왼손으로는 상대방 오른쪽 다리에 두른 살바를 잡으며, 서로 오른쪽 어깨를 맞대고 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씨름 기술로는 공격기술인 ‘메치기’와 방어기술인 ‘되치기’, 그리고 허리기술인 ‘들배지기’가 있다 한다.

이제, 그 세부 묘사가 대단히 치밀한 인용문을 살펴보자. ①은 오늘날 널리 시행되는 ‘왼씨름’이 아닌 ‘오른씨름’을 묘사한 것이다.<sup>6)</sup> ‘왼씨름’의 기본자세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②에 묘사된 씨름의 기술은 전형적인 ‘들배지기’이다. 들배지기란 공격자의 자세를 상대보다 낮춘 다음 살바를 당겨 위로 들어 올려서 오른 무릎으로 상대의 오른 무릎을 자기의 왼쪽으로 나가게 밀고서 자기의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넘기는 것이라 한다. 인용문을 보면, 소년이 구사한 씨름 기술의 과정은 ‘중을 들었다가, 돌리고 나서, 자신의 허리를 굽혀 중을 거꾸로 내던진 것’으로 되

5) 인용문의 원문은 이 글의 주석 부분을 참조바람.

6) 인용문의 ①은 ‘앉아서’ 살바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서서’ 살바를 잡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중이 선 채로 웃기만 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跪’와 ‘暨’는 기존의 번역처럼 ‘무릎을 꿇다와 세우다’로 해석하면 오역이다. 왜냐하면 ‘앉아서’ 살바 잡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서’ 씨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무릎을 굽히다와 펴서 세우다’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어 있다. 곧, 들배지기란 씨름기술과 서로 일치한다. 소년이 씨름기술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중은 들러지니까 바둥거렸고, 돌리니까 맥 추지 못하였고, 내던져지니까 똥구덩이에서 죽었다. 이 장면이 매우 실감나게 서술되어 있다. 결국, ①과②의 장면은 ‘오른씨름’의 ‘들배지기’ 장면이다.

그런데 작품의 지리적 배경인 延安이 황해도에 있는 고을임을 감안하면 ‘오른씨름’이 아니라 ‘왼씨름’이 묘사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오른씨름’이 묘사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각저소년전>이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傳을 표방하고 있음을 유의하면 이해하기가 더욱 난감하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卞鍾運이란 작가가 李子明이나 黃敬日로부터 전해들은 각저소년의 씨름 이야기<sup>7)</sup>는, 이미 앞서 이야기했듯, 섬약한 젊은이가 덩치 큰 장정을 씨름으로 이겼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가 아닌 ‘승리’에만 관심을 가진 단순한 줄거리의 이야기 정도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줄거리 중심의 단순한 이야기를 들은 작가가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묘사를 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때 영향을 미친 것이 단원 김홍도의 씨름그림이 아닌가 한다.

조선후기 문헌자료를 통해 당대 한양의 씨름 양상을 보면, 정조 때의 문신 柳得恭(1749-1807)이 서울의 세시풍습을 기록한 책인 《京都雜誌》에는 “서울 소년들이 남산 기슭에 모여서 씨름을 하였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두 무릎을 꿇고, 각자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또 각자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잡은 다음, 일시에 일어나면서 서로 번쩍 들어 매치는데, 안으로 걸기[內句], 밖으로 걸기[外句], 돌면서 추켜올리기[輪起] 등 여러 수가 있었다.”<sup>8)</sup>”고 되어 있어

7) <각저소년전>을 쓰게 된 경위를 언급한 작가의 後識가 있는데, “나는 일찍이 대강의 이야기를 자명에게서 들었다. 그후, 정곡의 노인 황경일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더욱 소상하였다(余嘗槩聞於子明. 其後, 貞谷老人黃敬日談此尤詳焉.)”고 기록하였다.

‘원씨름’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 19세기 초 순조 때 洪錫謨(?~?)의 《東國歲時記》에도 “젊은이들이 南山의 倭場이나 北嶽山의 神武門(주: 경복궁 후문) 뒤에 모여서 씨름을 하였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무릎을 꿇고, 각자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또 각자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잡은 다음, 일시에 일어나면서 번쩍 들어 메치는데, 밑에 깔린 자가 지는 것이며, 안으로 걸기, 밖으로 걸기, 돌면서 추켜올리기 등 여러 수가 있었다.”<sup>9)</sup>”라는 기록이 있어 ‘원씨름’이 성행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단원 김홍도(1745~?)가 그린 25면의 풍속화첩 중 위의 씨름그림을 보면, 씨름판에는 양반, 중인, 농민, 총각, 아이들이 어우러져 구경

8) 이석호 역, 『동국세시기 외』, 을유문화사, 1983, 310면. “都下少年, 會于南山之麓, 與之角力. 其法, 兩人對跪, 各用右手拏對者之腰, 又各用左手拏對者之右股, 一時起立, 互舉而拏之, 有內句·外句·輪起諸勢.”

9) 이석호 역, 『동국세시기 외』, 을유문화사, 1983, 263면. “丁壯年少者, 會於南山之倭場, 北山之神武門後, 爲角力之戲. 其法, 兩人對跪, 各用右手拏對者之腰, 又各用左手拏對者之右股, 一時起立, 互舉而拏之, 倒臥者爲負, 有內句·外句·輪起諸勢.”

하고 있고, 한 어린 아이가 승부에는 아랑곳 않은 채 엿판을 매고 장사에 열중한 가운데, 한 선수가 ‘들배지기’로 상대방을 들어 메치려 하고 있다. 배지기를 드는 자는 중심을 제대로 잡고 안정된 자세로 취하며, 어깨의 높이는 상대의 어깨보다 밑으로 쳐져 붙어서 상대를 자기 몸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고 있다. 들려진 상대는 오른편 다리 무릎을 적수의 불두덩 사이에 붙이고 왼편 다리를 뒤로 뻗치면서 상대의 몸에 바짝 붙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동작을 보여 주고 있다. 두 경기자는 당시의 의복인 바지저고리를 입고 땃님을 매었으며 살바는 왼쪽 넓적다리에 매고 허리에는 살바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들배지기 자세와 살바를 맨 다리를 볼 때 ‘오른씨름’이다. 결국, 김홍도의 씨름그림도 <각저소년전>과 마찬가지로 ‘오른씨름’의 ‘들배지기’ 장면이다.

회화상에 보이는 씨름도를 살펴보면, 고구려시대의 角抵塚 玄室 씨름 벽화도는 ‘왼씨름’이나, 이미 살핀 바 있는 김홍도의 씨름그림은 ‘오른씨름’이다. 동시대의 蕙園 申潤福(1758-?)이 그린 大快圖, 이를 모사하였다는 蕙山 劉淑(1827-1873)의 대쾌도 등도 역시 ‘오른씨름’인데, 이들은 모두 김홍도처럼 圖畫署 畫員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대쾌도는 ‘배지기’를 하는 형상이 아니라 ‘선 채로 살바를 잡고 씨름자세를 취하는’ 형상이다. 반면, 19세기 최말엽의 箕山 金俊根이 그린 풍속도첩 중 씨름하기는 ‘왼씨름’이다. 따라서 도화서 화원 출신의 중인이 그린 그림에는 ‘오른씨름’이 선택되어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변중운이 19세기 중엽에 지은 <각저소년전>에서 ‘오른씨름’의 ‘들배지기’ 장면을 묘사한 것과 18세기 말엽 그려진 김홍도의 씨름그림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돌리기에는 너무나 공교롭다. ‘왼씨름’이 성행했던 황해도 延安에서 있었던 씨름 사건에 대한 줄거리 중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변중운이 그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때 당대 김홍도의 씨름그림을 떠올리며 묘사함으로써 황해도와 무관한 ‘오른씨름’이, 그리고 다양한 씨름기술 중에서도 ‘들배지기’가



선택된 것이 아닌가 한다.<sup>10)</sup> 정조의 초상화를 그린 圖畫署 畫員이었던 김홍도는 대대로 무관을 지낸 중인 집안의 자제로 1745년 태어나 1806년 이후 어느 시점에 죽은 인물이고, 19세기 중인의 대표적 譯官이었던 변중운은 1790년에 태어나 1866년에 죽은 인물로 둘 다 中人임을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또 19세기 당대 중국은 조선과 같은 씨름이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추론과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위의 인용문은 문학과 미술과의 교섭양상 및 소설의 창작과정의 일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한편, <각저소년전>은 박희병 교수<sup>11)</sup>가 작품 전체를 서술분절 단위로 소개하는 가운데 줄거리에 대한 대강의 번역이 이루어졌고, 유권석 교수<sup>12)</sup>에 의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져 있다. 정병호 교수<sup>13)</sup>와 유권석 교수의 소논문에 의해 한두 대목의 정밀한 부분번역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작품의 주석 작업도 박희병 교수의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2005, 소명출판)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 작품에 대한 완성도 있는 번역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지라, 작품의 흐름과 문맥에 맞게 정밀하고도 맛깔스러운 번역이 필요하며, 주석도 좀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위의 선행업적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부분역이 아닌 완역을 도모하였다.

---

10) 이를 두고, 당대 이미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김홍도의 씨름그림이 널리 알려졌던 것이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중운이 어떤 계기로든 김홍도의 씨름그림을 직접 보았던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증자료는 아직 없다.

11) 박희병, 앞의 책, 341-347쪽.

12) 유권석, 앞의 논문, 313-315쪽.

13) 정병호, 「변중운의 전과 소설」, 『대동한문학』 10, 대동한문학회, 1998.

## II. 역문

씨름[角觚]하던 젊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곽운(郭雲)이라는 이가 주막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 곽운은 호가 원봉(圓峯)이고 자가 자명(子明)인 이증조(李曾租)의 외손이다.<sup>14)</sup> 젊어서는 일만 전(一萬錢)이나 되는 돈을 끼고도 수십 보(步)의 깊은 못을 건너뛰는 등 자신의 힘을 자부하여 쪼다니기를 좋아했지,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했다. 길에서 못마땅한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해 거의 자기 몸을 생각지 않았다.

일찍이 연안(延安)의 들녘을 지날 적, 중 하나가 주막<sup>15)</sup> 문밖에 방자히 걸터앉아 주막주인에게 빗 독촉을 하는데 몹시 모질고 사나워 보이며 건장하였다. 그때 마침 마을에서 소를 잡고 있었는데, 줄이 끊어져 소가 달아났다. 소는 길길이 날뛰며 보는 사람마다 뿔로 들이박다가 곧장 중에게 달려들었다. 중은 태연히 앉아 있다가 주먹으로 달려드는 소의 정수리를 치니, 소가 몸을 뒤집고 죽었다.

곽운이 이를 보고 혀를 내두르니, 곁에서 자리를 찌던 자가 말하였다.

“그 정도쯤이야 어찌 말할 만한 거리가 되겠소? 아무 절에 큰 돌이 길 한가운데 있었는데, 소 일곱 마리로 옮기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저 중이 거뜬히 옮겼다고요. 또 저 중은 씨름을 좋아하는데, 세상에 자기의 적수가 없음을 한탄하여 삼척동자일지라도 그와 씨름하는 자세를 취하며 장난질을 한다고요.”

연이어서 마을사람들이 다투어 술을 갖고 왔는데, 모두가 중에게 빚을 진 자들이었다.

중이 그 술을 실컷 마시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소를 타고 왔는데 장옷

14) 박희병,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804면 각주1) 참조.

15) 원문의 ‘店’을 ‘점포’나 ‘가게’라 하지 않고 ‘酒幕’이라 한 것은 단지 물건만을 파는 곳이 아니고 밥과 술을 팔기도 하고 돈을 받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곳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으로 머리서부터 덮고 있었다. 한 젊은이가 그녀의 뒤를 따랐는데 섬약하여 옷과 신발의 무게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듯했다. 그 여자가 소에서 내려 주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녀의 얼굴이 반쯤 드러나니 뛰어난 미인이었다. 중이 한참이나 멍하니 보고나서는 중얼거렸다.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네로다.”

손짓으로 젊은이를 부르며 물었다

“이리 와보게! 소를 타고 온 여자가 자네의 누인가? 처인가?”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그녀는 나의 처요.”

중이 말하였다.

“내가 산속 절간[叢林]에서 늙었는지라, 본 것이라고는 야생화와 들풀이 전부였다. 지금 자네의 아내를 보니, 나의 혼을 녹이는구나. 내가 삼백 금을 자네에게 아끼지 않고 줄 터이니, 자네는 돌아가 저러산(苧羅山) 아래서 다른 여자를 구하게나.”

젊은이가 비웃으며 말하였다.

“비록 오(吳)나라 왕 부차(夫差)를 기쁘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스님의 혼을 녹일 정도는 되는데, 삼백 금이라니 어찌 그리도 적소?”

중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미인 하나를 위해 나의 바랑에 든 재산 반을 내놓은 것이네.”

그러더니 모든 채무자들을 불러 앞에 모아놓고 명했다.

“나의 빛이 삼백 금이니, 삼일 내로 이 젊은이에게 다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루로 으깨어놓겠다.”

이 말을 들은 채무자들은 감히 어기지 못하고, “예예.” 하며 물러났다. 중이 또 시냇가 남쪽 밭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의 땅이네. 가을 수확 때면 이십 명의 소작인이 각각 닷 섬씩 바친다네. 이 땅도 아울러 주겠으니, 자네는 두 말 하지 말게!”

또 어린 사미승(沙彌僧)을 부르더니, 바랑 속에서 열쇠를 꺼내주며 말하였다.

“날듯이 산사(山寺)로 달려가서 베갯말의 작은 상자를 열고 빛 문서를 찾아오너라.”

“발문서는 누각 위의 시렁 깊은 곳에 두었으니, 내가 절에 올라가서 다시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게나.”

말을 마치고는 몸을 돌려 주막으로 들어가려 하자, 젊은이가 말하였다.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아서 신혼의 단꿈에 막 젖어있었으니, 손 한번만이라도 잡아보고 이별하는 것쯤은 용납해 주지 않으렵니까?”

중이 씩 웃으며 말하였다.

“사람의 마음이야 참으로 그러하겠으나, 끝내 한번은 이별해야 하니 시간을 질질 끌지는 말게.”

이때 곽운은 의기가 낮빛에 드러났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다. 젊은이는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고서는 말하였다.

“매일 밤 우리 부부가 번번이 씨름으로 방 가운데서 놀이를 즐겼는데,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게 되었구려.”

중이 기뻐하며 물었다.

“자네가 씨름을 잘한다니, 나와 한 번 해보지 않으려는가?”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만 씨름에 내기가 없으면 이기고 진 것을 가릴 수가 없고 특히 구경하는 사람들이 지루하고 재미없어 할 것이니, 스님께서 아낌없이 한번 밀친 걸고 내기하시어 곁에서 보는 이들이 유쾌히 웃도록 하시면 어떻겠는지요?”

중이 성이 나서 팔을 걷어 부치고 물었다.

“오랫동안 씨름을 못하였더니 가슴이 답답하여 맺힌 듯 했는데, 이제야 나를 분발케 하는 자가 자네로구나. 내기라면 어떤 내기를 하려고

생각했는가?”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스님이 저를 이기면 저에게 한 푼도 갚지 말고 제 처를 데려가면 되고, 제가 스님을 이기면 스님의 밭과 돈은 바라지도 않으니 처와 함께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중이 또한 기뻐하며 말하였다.

“내기는 내기이지만, 고추잠자리가 돌기등을 흔드는 격이 아니겠는가?”

젊은이가 말하였다.

“스님은 단지 돌기등이 되면 그만이지, 굳이 잠자리를 대신하여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이 또한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씨름도 하기 전에 입씨름부터 예리하니, 자네 역시 쓸 만한 젊은이로구나.”

때는 바야흐로 늦봄,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겨우 그쳐 길이 온통 진창이었다. 다만, 주막 앞에 넓이가 수백 보쯤 되는 작은 언덕의 언덕배기만 평평하고도 넓으면서 티끌이 일어날 정도로 굳어 있었다. 젊은이가 그곳을 가리키면서 유쾌히 웃으며 말하였다.

“저곳은 하늘이 스님을 위해 마련한 씨름장입니다.”

젊은이는 중과 함께 언덕배기로 올라갔다. 마을사람들도 많이 따라갔는데, 곱운도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언덕배기 아래에는 큰 구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의 인분을 모아두었다가 해마다 밭에다 퇴비로 주는 곳이었다. 그 깊이가 아주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동서로 마주서서 윗옷을 벗었다. 중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나는 이 젊은이와 장난질삼아 하는 것이오.”

이에, 젊은이는 오른 무릎을 굽히고 왼 무릎을 펴서 세우며 등을 활

모양으로 구부리고 배에 힘을 주면서, 오른손으로 중의 왼쪽 넓적다리를 움켜잡고 다시 왼손으로 중의 등을 휘감으며 그 허리띠를 짊 잡았다. 그러자 중은 키[箕]처럼 두 다리 벌려선 채로 계속 꺾꺾대며 웃더니 그치지 않았다. 젊은이가 갑자기 기합소리를 넣더니 별안간 중을 곧추들어 올려 자신의 왼쪽 어깨 위에다 걸쳤다. 중은 두 손으로 허공을 허우적대고 두 다리로 허공을 바둥거리니, 마치 헤엄치는 이가 파도 속을 이리저리 헤엄치는 것과 같았다. 젊은이가 빙빙 돌리니, 완연히 큰 봉새가 날개로 큰 바람을 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는데도, 중은 여전히 젊은이의 어깨 위에 걸쳐 있었다. 또 물레가 베틀을 따라 도는 듯하여, 힘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었다. 젊은이가 한 어깨는 높이고 한 어깨는 낮추며, 왼손은 쟁반에 물을 담는 듯하고 오른손은 칼집에서 칼을 뽑는 듯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허리를 굽혀 마침내 못된 중을 똥구덩이에다 던져버렸다. 이는 씨름법 중 이른바 ‘금강(金剛)이 몸을 뒤집자 옥산(玉山)이 허공에 꼬꾸라지는’ 수였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물이 물병에서 쏟아지듯, 그 수는 막을 수가 없었다. 똥구덩이가 열리는가 싶었는데 다시 닫히니, 청정법신(淸淨法身)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더러운 똥구덩이 속에서 열반하였다. 비록 천불(千佛)이 세상에 나와서 뉘우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씨름판을 둘러싸고 구경한 자가 몇 천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중이 젊은이의 아내를 빼앗고자 할 때 그 누군들 성내지 않았겠는가 마는 오직 범처럼 사나운 중을 무서워하며 화가 나도 감히 성낼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젊은이가 중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주려 할 때 그 누군들 그를 딱하게 여기지 않았겠는가마는 이미 그의 곤란한 처지를 해결해줄 방도가 없었으니, 가련도 가련이 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젊은이가 중에게 씨름을 걸었을 때 그 누군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는가마는 잠깐 미처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했으니, 그 의혹도 온전한 의혹은 아니리라.

중이 죽자 그것을 통쾌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젊은이가 중을 죽인 것을 기특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떠들썩하게 젊은이의 앞으로 다가와서 그의 성명을 묻는 자도 있고, 그의 나이를 묻는 자도 있었으며, 그의 고향을 묻는 자도 있었다.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성은 이(李)요, 나이는 십육 세입니다.”

그러나 이름과 고향만은 알려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친김에 계속 말하였다.

“중이 받을 빛은 정말로 삼백 금에 모자라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시냇가 남쪽 밭 같은 경우는 모두가 경영(京營)의 둔전(屯田)이니, 중에게 어찌 송곳인들 세울 만한 땅조차 있었겠는가?”

또 젊은이에게 물었다.

“중이 씨름을 좋아한다는 것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는가? 어떻게 중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의 목숨을 앗을 수 있었던 말인가?”

젊은이는 단지 미소만 지을 뿐, 주막으로 돌아와 밥을 재촉하여서는 다 먹었다. 때마침 사미승이 빛 문서를 가지고 오니, 젊은이가 받아 가져다가 불사르며 말하였다.

“저 흉악하고 더러운 중을 죽여서 기림정토(祇林淨土)를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이 빛 문서도 불태워서 마을의 피해를 없게 하겠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자신의 아내를 부축하여 소에 태우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곽운은 중에게 기가 꺾인 데다 젊은이에게 간담이 서늘했는지라, 집으로 돌아와서는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남과 겨루려 하지 않았으니, 다시는 예전의 곽운이 아니었다. 이자명(李子明)의 돌아가신 아버지 상사공(上舍公)이 곽운의 행동거지가 이상해서 물으니, 곽운은 곧장 씨름하던 젊은이의 일을 말씀드렸다. 나는 일찍이 대강의 이야기를 자명(子明)에게서 들었다. 그 후, 정곡(貞谷)의 노인 황경일(黃敬日)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더욱 소상하였다.

### Ⅲ. 원문과 주석

角觝<sup>16)</sup>少年, 不知何許人. 有郭雲者, 嘗見於逆旅中, 郭乃圓峯李子明曾租之彌甥<sup>17)</sup>也. 少也, 能挾一萬錢, 超數十步深淵, 自負其力, 喜動而不能靜也. 路見不平, 殆忘其身.

嘗過延安<sup>18)</sup>之野, 有一僧箕踞<sup>19)</sup>店門外, 督債于店主, 貌甚孳壯. 適村有屠牛者, 索斷而牛逸, 一躍數丈, 逢人輒觸, 直轟于僧. 僧坐自若<sup>20)</sup>, 以拳抵其額, 牛翻身而斃. 郭見之吐舌. 傍有織席者曰: “是何足道也? 某寺有大石當途<sup>21)</sup>, 挽之以七牛而不動, 是僧能轉之. 且好角觝之戲, 嘗恨世間無敵手, 雖三尺之童, 猶與之作其勢而戲也.” 繼而村人爭持壺觴來, 皆負僧債者也.

僧方縱飲<sup>22)</sup>, 有一女子騎牛而來, 以長衣<sup>23)</sup>蒙其首, 一少年隨其後, 纖弱<sup>24)</sup>若不勝衣與屨者. 其女子下牛而入店, 其面半露, 國色也. 僧惘然良久曰: “眞窈窕<sup>25)</sup>娘也.” 以手招少年曰: “來! 騎牛者, 汝之妹歟? 婦歟?” 少年曰: “是爲我箕箒<sup>26)</sup>者也.” 僧曰: “吾老於叢林<sup>27)</sup>中, 所見者山花野草已也.

16) 角觝(각저): 두 사람이 맞붙어 힘이나 기예를 겨루던 씨름을 이르는 말.

17) 彌甥(미생): 외손.

18) 延安(연안): 황해도에 있는 고을 이름. 연백평야의 중심지이다.

19) 箕踞(기거): 두 다리를 뻗고 앉음. 마루턱 또는 문턱을 방자하게 걸터앉아 상대 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자세이다.

20) 自若(자약): ‘自若故’의 줄임말로, 위험이나 곤란에 직면해서도 보통과 변함없이 유연하게 있는 모습.

21) 當途(당도): 도로의 한가운데.

22) 縱飲(종음): 마시고 싶은 대로 실컷 술을 마심.

23) 長衣(장의): 장옷. 부녀자가 나들이할 때 內外用으로 머리에서부터 내리쓰던 옷. 조선 전기에는 남자들의 겹옷[裯]으로 두루마기와 함께 장옷이 착용되었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의복의 간소화와 더불어 남자의 겹옷으로 두루마기 한 가지만 남고, 장옷은 여자의 전용 쓰개가 되었다.

24) 纖弱(섬약): 가냘프고 연약함.

25) 窈窕(요조): 아름답고 정숙하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아름답다’는 의미가 강함.

26) 箕箒(기주): 쓰레받기와 비를 가지고 소제를 하는 시비를 뜻한 것이나, 여기서는 ‘자신의 처첩이 됨’의 겸칭.

27) 叢林(총림): 잡목이 우거진 숲이란 뜻이나, 여기서는 ‘많은 스님들이 함께 모여



今汝之婦，銷我魂矣。吾不惜三百金以償汝，汝歸而更求諸苧羅山<sup>28</sup>下也。”  
 少年笑曰：“雖不足以娛夫差<sup>29</sup>，既能銷師<sup>30</sup>之魂，三百金又何少也？”僧嘖  
 眉曰：“爲一尤物<sup>31</sup>，山人之橐<sup>32</sup>，傾其半矣。”招諸負債者至前曰：“吾債三  
 百金，三日內，移償此兒郎也！不爾，粉蠶<sup>33</sup>矣。”諸人不敢違，唯唯<sup>34</sup>而退。  
 僧又指溪南田曰：“自某至某，皆吾地也。秋熟而二十佃戶，各納五石租矣。  
 並以償汝，汝勿復言！”仍呼少沙彌<sup>35</sup>，自囊中出一鑰匙曰：“飛步山寺去，啓  
 枕頭小箱，覓債券來。”田券深度在樓上，待我上寺更取來。”言畢，轉身欲入  
 店內。少年曰：“新婚數朔，燕爾<sup>36</sup>方洽，獨不容一握手別乎？”僧笑曰：“人  
 情固然，終須一別，亦勿遲遲也。”

此時，郭義形於色，亦不敢動也。少年忽太息曰：“每夜夫婦，輒一角觥，爲

---

수행 정진하는 절'을 이르는 말. 많은 수행승들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을 수목이  
 우거진 숲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 28) 苧羅山(저라산): 중국 浙江省에 있는 산. 춘추시대 越나라의 절세미녀 西施는 이  
 곳 근처에서 나무장수의 딸로 태어났다.
- 29) 夫差(부차): 중국 춘추시대 吳나라의 왕. 吳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越王 勾踐이  
 절세의 미인 西施를 바쳐서 방심을 유도하니,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치와 환락  
 의 세월을 보내어 멸망을 자초한 왕이다.
- 30) 師(사): 중. 스님.
- 31) 尤物(우물): 사람을 끄는 매력을 지닌 여자.(=美人) 뛰어난 미인은 사람의 마음  
 을 바꿔놓는다는 의미에서 ‘尤’를 쓴 것인데,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인다.
- 32) 山人之橐(산인지탁): 중의 바랑. ‘山人’은 산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중이  
 나 도사를 이르는 말이니, ‘橐’은 중이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를 이르는 바랑이다.
- 33) 粉蠶(분제): 으깬.
- 34) 唯唯(유유): 네네. 공손히 대답하는 소리로, 지당한 말씀이라고 그저 굽실거리는  
 모양이다.
- 35) 沙彌(사미): 막 出家하여 十戒를 받기는 했으나 아직 修行을 쌓지 않은 소년  
 중.(=沙彌僧)
- 36) 燕爾(연이): 신혼의 정. 嚴有翼의 《藝苑雌黃》을 보면, “옛사람들 문장에는 대  
 부분 兄弟를 ‘友于’, 日月을 ‘居諸’, 黎民을 ‘周餘’, 子孫을 ‘貽厥’, 新婚을 ‘燕爾’라  
 고 했는데, 이런 종류의 언어는 모두 문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昔人文章中  
 多以兄弟爲友于, 以日月爲居諸, 以黎民爲周餘, 以子孫爲貽厥, 以新婚爲燕爾, 類  
 皆不成文理.)”라는 사례가 보인다.

房中之戲，今不可復得矣。”僧欣然<sup>37)</sup>曰：“汝能角觝，盍與我一戲？”少年曰：“非曰能之，願學焉。但角觝而不爲之賭也，無以別勝負，殊令人寂寂<sup>38)</sup>，師能不惜一注<sup>39)</sup>以博<sup>40)</sup>，傍觀之一笑<sup>41)</sup>乎？”僧扼腕<sup>42)</sup>曰：“久未角觝，氣鬱鬱如結，今起予者小子也<sup>43)</sup>。願賭將何賭？”少年曰：“師勝我也，不償我一金，挾我婦去，如我勝也，不敢望師之田與錢也，同我婦子而歸足矣。”僧又喜曰：“賭則賭矣，無乃赤卒<sup>44)</sup>之撼石柱乎？”少年曰：“師只作石柱而已，何必替蜻蜓<sup>45)</sup>憂也？”僧又笑曰：“角觝之前，口角<sup>46)</sup>先利，汝亦可兒也。”

時方暮春，宿雨<sup>47)</sup>纔歇，道途<sup>48)</sup>泥濘<sup>49)</sup>，惟店前一小阜廣可數百步，其上平衍<sup>50)</sup>，輕塵欲生。少年指而笑曰：“此天爲師設一角觝場也。”與之俱登於阜。村人多隨之，郭亦在其中。阜之下，有一大窟，受一村之糞，每歲腴其田者也。其深無底。

兩人東西立，脫其上衣。僧顧諸人曰：“老僧乃與此兒戲也。”於是少年跪其右膝，豎其左膝，隆其背而實其腹，以右手扼僧之左股，更以左手循僧之背，

37) 欣然(혼연):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은 모양.

38) 寂寂(적적):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음.

39) 注(주): 내기에 밑천을 줌.

40) 博(박): 내기. 도박.

41) 一笑(일소): 한바탕 웃음.

42) 扼腕(액완): 성이 나서 팔을 걷어 부침.

43) 起予者小子也(기여자소자야): 나를 분발케 하는 자가 네로구나. 《論語》「八佾第三」에서 孔子가 제자인 子夏(이름; 商)가 자기를 일깨워줌을 칭찬하여 “起予者商也.”라 한 어투를 흉내 낸 것인데, 이는 ‘少年’ 대신 스승이 제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인 ‘小子’로 바꾸어 사용한 데서도 확인된다.

44) 赤卒(적졸): 고추잠자리. 썸나라 崔豹가 撰한 《古今注》 卷中「魚蟲第五」의 “蜻蛉，一名青蛉，一名胡蝶，色青而大者是也。小而黃者曰胡梨。一曰胡離。小而赤者曰赤卒，一名絳騶，一名赤衣使者，好集水上，亦名赤弁丈人.”에 설명이 나온다.

45) 蜻蜓(칭정): 잠자리.

46) 口角(구각): 입아귀란 뜻이나, 여기서는 ‘입씨름’의 의미인 듯.

47) 宿雨(숙우): 여러 날 계속해서 내리는 비.

48) 道途(도도): 길.

49) 泥濘(이녕): 진창.

50) 平衍(평연): 평평하고 넓음.

牢握其腰帶。僧立如箕，猶笑吃吃不止。少年忽奮呼一聲，崛然<sup>51</sup>起，橫僧於其左肩上。僧兩手爬空，兩脚蹴虛，有若泐者之宛轉<sup>52</sup>於波濤中。少年因以盤旋<sup>53</sup>，宛然大鵬之搏扶搖<sup>54</sup>，而僧猶掛于其肩。又若紡車<sup>55</sup>之隨機而轉也，無所施其力。少年一肩高一肩低，左手如盤盛水，右手如劍拔鞘，忽彎其腰，竟將惡僧，擲之糞窖中。此角觚法所謂‘金剛翻身玉山倒空<sup>56</sup>’之勢也。星隕于天，水瀉于瓶，勢莫之遏。糞開而復合，清淨法身<sup>57</sup>，涅槃<sup>58</sup>於蟲蛆污穢之中。雖千佛<sup>59</sup>出世，殆將懺悔之，無及矣。環而觀者，不知爲幾十百人。

方僧之欲奪其婦也，夫孰不爲之忿也，惟畏僧之如虎，忿猶不敢忿也。方少年之無難許其婦也，夫孰不爲之憐也，既無所解難焉，則憐不足爲憐也。及夫少年之請角觚也，又孰不爲之疑也，姑未知排布<sup>60</sup>之如何也，疑猶有未盡疑也。

至此而莫不快僧之死，又莫不奇其能死僧也，紛紛然<sup>61</sup>進其前，有問其姓名者矣，有問其齒者矣，有問其鄉里者矣。少年答：“姓李，年十六。”而名與

---

51) 崛然(굴연): 산이 우뚝 솟은 모양이란 뜻이나, 여기서는 ‘상대방을 큰 동작으로 갑자기 끈추들어 올리는 모양을 의미함.

52) 宛轉(완전):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양.

53) 盤旋(반선): 빙빙 돌림.

54) 大鵬之搏扶搖(대봉지박부요):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 전설상의 새인 大鵬이 바람을 침. <莊子> 「逍遙遊」의 “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갈 때에는 물결을 쳐 올리는 높이가 삼천 리나 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나 올라가 육 개월을 날고 나서야 쉰다(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扶搖’는 大風이다.

55) 紡車(방차): 물레.

56) 金剛翻身玉山倒空(금강번신옥산도공): 씨름의 ‘들배지기’를 형용하는 말인 듯. 金剛은 불교에서 天魔를 항복시킨 소년을 이르는 金剛童子이고, 玉山은 외모와 풍채가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57) 清淨法身(청정법신): 번뇌를 벗어난 법신. 중이 죽으면서 불법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다. 참고로, 번뇌 속에 있으면 ‘如來藏’이라 한다.

58) 涅槃(열반): 佛道를 완전하게 이루어 일체의 번뇌를 해탈한 최고의 경지.

59) 千佛(천불): 현전에 나타나는 일천 부처.

60) 排布(배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세운 계획.

61) 紛紛然(분분연): 떠들썩한 모양.

鄉, 不以告也. 諸人因言: “僧之債, 果不下三百金. 至若溪南之田, 皆京營<sup>62)</sup>屯土<sup>63)</sup>, 渠何嘗有立錐地也?” 又有問者曰: “僧之好角觝, 能先有入聞者乎? 是何能投其好而制其命也?” 少年但含笑而已, 返于店, 促飯訖. 適沙彌抱券來, 少年取而焚之曰: “殄此凶穢, 使無汚祇林淨土<sup>64)</sup>. 燒此業障<sup>65)</sup>, 爲一村祛瘼.” 遂扶其婦上牛, 從容而去.

郭氣沮於僧, 膽慙於少年, 歸而恟恟然<sup>66)</sup>不敢與人較, 非復昔日之郭生矣. 李子明先君<sup>67)</sup>上舍<sup>68)</sup>公, 異而問之, 郭輒道角觝少年事. 余嘗槩聞於子明. 其後, 貞谷老人黃敬日談此尤詳焉.

[歎齋集]<sup>69)</sup>

주제어 : 각저소녀전, 전계소설, 증오, 왼씨름, 오른씨름, 씨름화, 세시풍속

---

62) 京營(경영): 서울에 있던 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守禦廳·總戎廳·龍虎營 등의 軍營을 통틀어 일컫던 말.  
 63) 屯土(둔토): 屯田. 군대의 軍糧이나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경작하는 밭.  
 64) 祇林淨土(기림정토): 사원. 절. 인도 마갈타국의 須達長者가 祇陀太子의 園林을 사서 절을 지어 부처에게 바쳤는데, 이것이 곧 祇園精舍이므로 전하여 절을 가리킨 말로 쓰인다.  
 65) 業障(업장): 중생이 正道를 해치는 貪欲·瞋恚 등에 미혹되어 惡業을 짓는 것을 불교에서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債券’을 가리킴.  
 66) 恟恟然(순순연):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모양.  
 67) 先君(선군): 돌아가신 아버지.(=先考)  
 68) 上舍(상사): 생원이나 진사를 일컫는 말.  
 69) 이 대본은 『한국문집총간』 303권(민족문화추진회, 2003)의 53-55면에 영인되어 있음.

## 참고문헌

- 이석호 역, 『동국세시기 외』, 을유문화사, 1969.
-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 정병호, 「변중운의 전과 소설」, 『대동한문학』 10, 대동한문학회, 1998.
- 박희병,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 이수진, 「소재 변중운의 시세계」, 『한국어문학연구』 4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 유권석, 「소재 변중운의 <각저소년전>에 관한 문예적 고찰」, 『한국 전문학 연구』, 보고서, 2006.

<Abstract>

A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and  
Translation with Notes of  
<*Gakjeosonyeonjeon*(角觥少年傳)>

Shin, Hae-Jin

<*Gakjeosonyeonjeon*>, a Jeon(傳) style novel, is written by Jong-un Byun(卞鍾運) and it comes from 《*Sojaejip*(歎齋集)》, the writer's collection of works. The main character, a monk loves women, wants to take a young man's wife by giving money and never pays attention to his self-discipline. Also, he threatens and blackmails debtors to get that money. In a word, he is the evil. On the other hand, the young man who is a ssirŭm(Korean wrestling) player looks like an unmanly person. But he shows his wisdom by suggesting the monk to fight with ssirŭm because this man already knew the fact that the monk likes ssirŭm. Besides, the monk died of this game and it shows the man's extraordinariness. In other words, the young man who is a coward-like figure wins the vicious monk so the story tells 'encouraging the good and punishing the evil'.

Ssirŭm as a means of punishing the evil is thought that this theme is based on the law of power. The young ssirŭm player is a symbol of the growing, new power-class against to the contradicting ruling class.

The unique feature of the novel is ssirŭm as the means of punishment. The description of ssirŭm scene is very concrete and

elaborate, and this is considered not to come from the real situation but to represent with pictures of ssirŭm. Therefore, the above discussion is important to examine the cooperating aspect of literature and fine arts, and also to look at one side of novel creating.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make more perfect translation and preciser notes of <*Gakjeosonyeonjeon*>.

Key Words : Gakjeosonyeonjeon, Jeon style novel(傳系小說), vicious monk(惡僧), left ssirŭm, right ssirŭm, pictures of ssirŭm, almanac of new year customs(歲時風俗記)